

지역 소식통

정읍시,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 97억7000만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97억7천여만원(보조 6억8천, 융자 7억4천, 자부담 19억5천)을 투입한다.

한·미·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축산시장 개방에 대응하고, 축사·축산 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비는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사주변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법인이며, 지원방식은 사육 규모에 따라 보조 포함(보조+융자)과 이차보전(융자)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축사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 질병을 근절하고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행안면, 부안오복마실축제 홍보 펼쳐

부안군 행안면이 오는 5월 열리는 제9회 부안오복마실축제 성공을 개최하려고 북돋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안면은 자체적으로 부안오복마실축제 홍보팀 2개팀을 구성하고 현수막이나 전단지 등 진부한 방식을 탈피해 샌드위치 맨, 축제홍보차량 제작 등 다양한 홍보로운 아이디어로 축제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행안면 직원들은 자체 제작한 홍보차량과 샌드위치맨을 이용해 오는 18일 개막하는 구례산수유축제장을 방문해 부안오복마실축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수질기준 부적합지역 급수시설 선제적 조치 추진

김제시 안전개발국은 소규모 수도시설인 금산면 백운동 마을의 수질 검사시 부적합이 발생하여 긴급 현장 점검하였다.

김제시는 이번 현장 점검 주민공지, 음용수 공급, 긴급 식수 공급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했다. 또한 백번 듣는거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소신으로 주민들의 필수인 먹는 물에 대하여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김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급수 시설 4개소(백운동 당월, 금천, 울치)에 대하여도 이번 점검시 방문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 뒤 관계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군 나누미근장학재단

오늘부터 대학 장학생 신청·접수

전국 최초 시행...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대학 비진학자 학원비 지원

부안군 나누미근장학재단(이사장 김종규)은 전국 최초로 시행 되는 대학 신입생 1학기 반값등록금 장학생과 대학 비진학자 취업·창업 학원비 지원생 선발 등에 따른 장학생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읍면 현장 접수를 받는다.

읍면 순회 일정은 부안읍사무소 3월 15~16일, 주산면사무소 17일, 동진면사무소 20일, 행안면사무소 21일, 계화면사무소 22일, 보안면사무소 23일, 변산면사무소 24일, 진서면사무소 27일, 백산면사무소 28일, 상서면사무소 29일, 하서면사무소 30일, 출포면사무소 31일 등 총 13개 읍면에서 13일 간 접수한다.

이 기간 동안 실거주지 읍면에서 신청을 못한 주민들은 내달 3일부터 12일까지 부안군청 3층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접수받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부안군 및 부안군 나누미근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군·읍면 사무소에서 교부받아 제출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17년 대학 신입생은 1학기 반값등록금을 명문대학교에 진학한 대학 신입생은 근장학금을, 2017년도 대학 비진학자는 취업·창업 학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자격은 부안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부모 모두가 부안군에 연속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안 출신 학생 또는 초·중·고교육박시행령 제88조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은 부모 모두가 부안군에 연속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오는 5월 선발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 반값등록금 등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반값등록금 중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반값을 1인당 30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하고 근장학금은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대학교 비진학자 취업·창업 학원비 지급은 학원등록 최초 1개월분 납입액의 반값을 30만 원 이하에서 지급한다.

나누미근장학재단 관계자는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 부안의 미래인 우리 자녀가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인재 발굴 양성 장학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오늘 지진 대피 특성화 훈련 실시

유치원 초·중·고교 등 110개교 1만6천여명 참여

정읍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 전역에서 일제히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국내 지진이 급년 들어 40여 차례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9월 18일 경주 지진 피해 발생 이후 그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발생에 대비한 지역 특성화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지진경보를 발령하고 3분간 지진으로 인한 건물 흔들림 현상을 가정해 시민들의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훈련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110개교 1만6천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 교직원 등이 시범훈련에 참여한다.

정읍소방서는 훈련에 앞서 학교를 방문하여 지진 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당일에는 현장지도에 나선다.

또 정읍경찰서는 시가지 교차로 등 주요 지점에 교통 경찰관을 배치하고 통행 차량의 질서 유지와 함께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진경보 사이렌이 울리면 건물 안에 있는 시민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속히 책상이나 탁자 밑으로 들어가 탁자 등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해야 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55개 1751억원 확정

정읍시는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55개 사업 1,751억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농업분야 기관 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경종분과, 축산분과, 임업유통분과, 정책분과 총 4개 분과 55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율사업은 농지규모와 사업과 친환경 농업 직불제, 조사료 생산7만 확대사업, 산림소득증대 사업 등 36개 사업 1천189억원이고, 공공사업은 조립 숲 가꾸기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등 6개 사업 84억원이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 488억원이다.

시는 이날 의결된 사업은 전년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 광활면 명품 햇감자 첫 수확

백색혁명 1번지로 불리는 김제 광활면의 햇감자 수확이 14일 오후 2시 한길수씨 농가를 시작으로 5월말까지 출하할 예정이다.

광활 햇감자는 오염되지 않은 간척지 토양에다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을 맞고 자라 감자생육에 필요한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알밤을 썰먹는 듯한 맛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평균 3만원에 왔다. 한편 올해 "광활 햇감자축제위원회"(위원장 신광식)에서는 4월 15일 광활초등학교에서 햇감자축제를 개최할 예정인데 초청가수 공연, 마을 노래자랑, 각종 감자 요리 시사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는 시중가격보다 10~20% 정도 싸게 판매한다.

채근석 광활면장은 "올해는 작년보다 기온 여건이 좋아 많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도매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형성되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오늘 지진 대피 특성화 훈련 실시

유치원 초·중·고교 등 110개교 1만6천여명 참여

정읍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 전역에서 일제히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시는 "국내 지진이 급년 들어 40여 차례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지난해 9월 18일 경주 지진 피해 발생 이후 그 여파가 지속됨에 따라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시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진 발생에 대비한 지역 특성화 훈련을 갖는다"고 밝혔다.

시는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지진경보를 발령하고 3분간 지진으로 인한 건물 흔들림 현상을 가정해 시민들의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또 3 분후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 인근 광장이나 운동장 공원 텃밭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운전중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들으면서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해야 한다.

지진 대피 훈련은 적의 공습과 포격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과는 달리 지하대피소를 이용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 4만부를 제작해 각 세대별로 사전 배포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정읍역, 제일고등학교 교차로 설치된 전광판을 이용해 지진대피요령을 시민에게 홍보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김제시, 내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55개 1751억원 확정

정읍시는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55개 사업 1,751억원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 13일 농업분야 기관 단체장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열고 경종분과, 축산분과, 임업유통분과, 정책분과 총 4개 분과 55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한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 488억원이다.

시는 이날 의결된 사업은 전년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홍보  
곰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  
강산  
뽕  
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894-8990  
www.gangsanwine.com